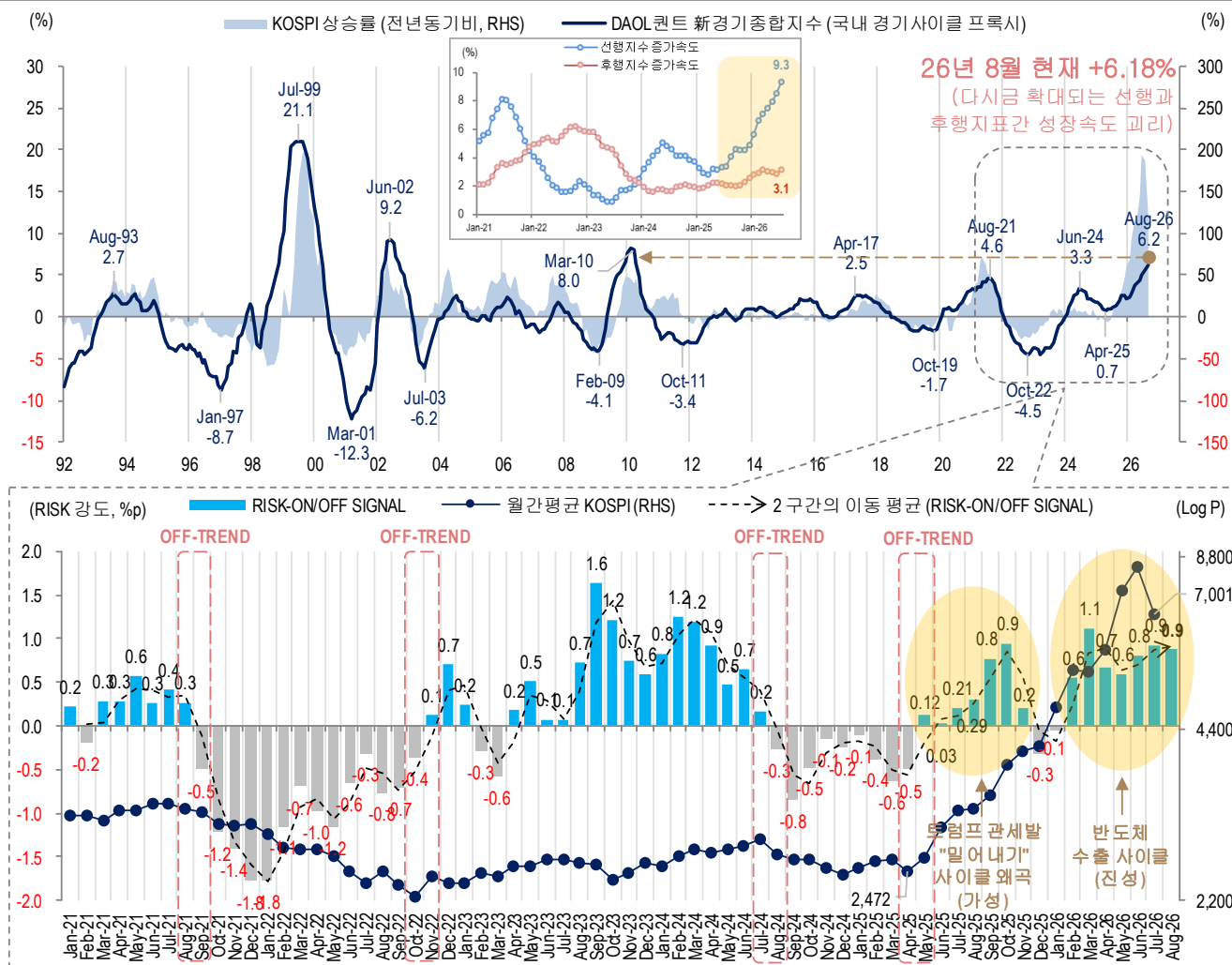




꾸준하기만 한 "제한적 확장"의 끝은?



Source: 통계청, DAOL투자증권

- 지난 6월부터 국내 경기사이클의 새로운 벤치마크로 2009년 "차화정" 때의 확장 국면을 제시. 작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종이 견인하는 국내 경기사이클은 이번달 선행지수가 17년만에 가장 큰 월 단위 상승을 기록하며 꾸준한 확장세 이어가는 중
- 허나 여전히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경기 확장이다 보니, 후행지수의 반동이 매우 더딘 "제한적 확장" 지속 중. 이는 국내 경기사이클의 현 위치가 초입 부분을 암시하는 "착시"일 개연성 또한 동시에 상존
- 지난 상반기가 반도체를 필두로한 "실적장세"라면,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에서 전개될 우호적인 금융환경 속 "멀티플 리레이팅" 국면이라는 시각 지속 유지 (e.g. 2026년 연간전망 참조 - 25년 11월 발간). 다만, 올해 외생변수인 이란전쟁이 현 시점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이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쇼크를 의미하는 만큼, 기존 전망을 180도 뒤바꾸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요인이란 점 유의 (i.e. 해당 판단 기준은 미국 Core CPI에 고물가 전이 여부가 될 것)